



고진영 VS 장하나…부산서 진검승부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선수 84명 확정
박인비·김효주·박민지 등 한국선수 49명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3승을 거두고 세계랭킹 1위 복귀를 눈앞에 둔 '해외파' 고진영(26)과 디펜딩 챔피언인 '국내파' 장하나(29)가 부산에서 진검 승부를 펼친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조직위원회는 21~24일 LPGA 인터내셔널 부산에서 펼쳐지는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23억8000만 원)에 나설 출전선수 84명 명단을 14일 최종 발표했다.

국내 유일의 LPGA 정규 투어 대회인 이번 대회에는 고진영을 비롯해 박인비(33), 김효주(26), 김세영(28), 전인지(27), 이정은6(25), 양희영(32) 등 미국에서 활약하는 우리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이민지(호주), 리디아 고(뉴질랜드), 대니엘 강(미국) 등 교포 선수들과 한나 그린(호주), 에리야 쭈타누깐(태국), 셀린 부티에(프랑스),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 등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외국 정상급 선수들도 출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올 시즌 메이저대회 우승자 5명 중 이민지만 참가하고 나머지 4명이 불참한 것은 다소 아쉬운 점.

여기에 맞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지난해 대회가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해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나서는 2019년 우승자 장하나를 비롯해 올 시즌 6승을 거둔 박민지(23), 박현경(21), 최혜진(22) 등 스타급 선수들이 총출동한다. 출전 선수 84명 중 미국에서 뛰는 선수들까지 포함해 한국 선수는 총 49명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김도헌 기자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마지막 대회 우승 정찬민…2021시즌 모든 일정 마친 스릭슨투어

파격적 지원…코리안투어 '성장 젖줄' 우뚝

드라이빙 레인지·스릭슨 투어밴 등
한층 강화된 협찬으로 선수들 지원
홍순성 대표이사 진한 애정 밑바탕
"1·2부간 실력차 느껴지지 않는다"



스릭슨투어 최종전이 열린 사우스링스 영암CC에는 코리안투어 특급대회에서도 보기 힘든 천연잔디 드라이빙 레인지가 설치됐다. 2부투어에 대한 스릭슨의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사진제공 | 스릭슨



던롭스포츠코리아 홍순성(오른쪽) 대표이사가 14일 사우스링스 영암CC에서 열린 스릭슨투어 20회 대회에서 우승자 정찬민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부투어 대회장을 빠짐없이 누비는 스릭슨의 투어밴.

한국프로골프(KPGA) 스릭슨투어(2부)가 14일 전남 영암의 사우스링스 영암CC에서 열린 20회 대회를 끝으로 2021시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3라운드 54홀 플레이로 열린 20회 대회 우승은 정찬민(22)에게 돌아갔다. 3라운드에서 7타를 줄이고 합계 17언더파 199타를 기록해 최종전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20회 대회 성적까지 반영된 스릭슨포인트 상위 10명 주인공에게는 내년 시즌 KPGA 코리안투어(1부) 출전권이 부여된다.

꿈의 무대 코리안투어로 가는 연결고리인 2부투어는 지난해부터 스릭슨이 타이틀 스폰서를 맡으면서 짜임새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대회 환경이나 선수 후원 등에 있어서 한층 진일보했다. 여기에는 스릭슨, 젝시오, 클리블랜드 등 세 골프 브랜드의 한국 내 유통을 맡고 있는 던롭스포츠코리아 홍순성 대표이사의 남자 골프에 대한 진한 애정이 밑바탕이 됐다.

'골프로 받은 사랑을 골프 발전을 위해 쏟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홍 대표는 지난해 5월 남자프로골프의 안정화와 성장을 위해 4년간 총 20억 원의 투자를 결정하고, 2부투어가 스릭슨투어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지난해가 내실 있는 운영과 파격적인 선수 협찬으로 2부투어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면 올해는 한층 강화된 선수 협찬과 서비스를 통해 꿈의 무대를 꿈꾸는 선수들의 '성장 젖줄'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1회 대회부터 모든 대회에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릭슨 투어밴을 상시 운영하고 트랙맨, GC쿼드를 활용한 정밀 분석 및 피팅을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를 도왔다.

코리안투어 특급대회에서도 보기 힘든 드라이빙 레인지를 스릭슨투어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운영한 것도 스릭슨의 남자골프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 20회 대회가 열린 사우스링스 영암CC에는 천연잔디 드라이빙레인지가 마련돼 2부투어 선수들에게 또 다른 자긍심을 심어줬다.

개인 캐디 동반 워킹플레이 방식으로 코리안투어와 비슷한 대회 운영 및 환경을 조성한 것도 스릭슨투어를 코리안투어로 가는 실질적 디딤돌로 삼기 위함이다.

스릭슨은 지난해부터 약 150명의 선수들과 후원계약을 체결해 선수양성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올해까지 예정된 10억 원은 이미 '예산 초과'가 될 정도로 투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늘었다.

스릭슨의 관심과 열정에 선수들도 응답하기 시작했다. 타이틀 후원 전 스릭슨 볼을 쓰는 선수는 5% 내외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 20%를 넘겼고 올해 후반에는 50%를 훌쩍 넘어갔다.

20회 대회 관전차 영암을 찾은 홍 대표는 "스릭슨투어와 코리안투어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선수들의 실력차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대회 환경도 마찬가지"라며 "한국 남자골프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더 힘을 보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내년에는 양적, 질적으로 더 성장한 스릭슨투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 |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I♥비빔밥"… 한식에 푹 빠진 PGA 스타들

'더 CJ컵' 스폰서 CJ, 체험이벤트
김주형과 만두 소스 만든 폴터
"비비고 고추장 소스 원더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간판선수들이 한식에 푹 빠졌다.

14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서밋 클럽에서 개막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 CJ컵'에 앞서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CJ는 한식의 매력을 알리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안 폴터(잉글랜드), 제이슨 데이, 애덤 스콧(이상 호주) 등 PGA 스타선수들은 비빔밥, 만두, 불고기 등 한식을 즐기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냈다.

공식 후원 브랜드 비비고가 마련한 '나만의 비법 만두소스 만들기'에서 제이슨 데이는 안병훈(30)과 함께 만두에 들어가는 재료 맞추기 퀴즈에 참여했고, 이안 폴터는 김주형(19)과 만두 소스를 직접 만들었다.

김주형은 고추장에 머스타드와 식초를 넣은 소스를 섞어 폴터에게 건넸고 폴터는



미 PGA투어 '더 CJ컵'을 앞두고 진행된 비비고 한식 체험 이벤트에서 김주형(왼쪽)과 이안 폴터가 자신만의 만두 비법 소스를 만들고 있다. 사진제공 | CJ제일제당

"평소에도 비비고 고추장 소스(갓추·GOT CHU) 같은 매운맛을 좋아한다. 이 소스가 입맛에 잘 맞는다"며 환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지난해 이 대회 한식 체험에서 직접 만든 비빔밥 한 그릇을 싹 비웠던 폴터는 올해도 고추장의 맛에 흠뻑 빠진 모습이었다는 게 CJ측 전언.

CJ 관계자는 "더 CJ컵은 골프 이벤트를 넘어 전 세계 골프 팬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비비고 브랜드의 입지를 다지고, PGA 투어 선수들과 함께하는 유쾌한 콘텐츠로 한식의 매력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희소식 무릎이 불편해서 고생하시는 분~

▶며칠 차고있어 보니 무릎이 부드럽고 이렇게 좋을수가!!
▶설명이 필요없다 무조건 2,3일만 착용해보면 느낀다!

名作 名品



착용해보니 그것참 신통하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상에서 흔히 겪는 일들 중 무릎이 불편하면 매사 의욕이 떨어지고 귀찮아진다.

사람은 일생동안 많은 시간을 서서 생활하므로 체중이 아래로 집중되어 무릎에 무리가 오게 되는데 특히 비만인 경우에, 다리를 많이 쓰거나, 나이가 들어 노화현상으로 무릎에 대사가 나빠지면 활동하기가 어려워진다.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단, 체중조절이 중요하며 걷기, 스트레칭, 수영 등 다리에 무리가 가지않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다.

무릎이 편안하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최근 불편한 무릎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생체(生體)에너지 무릎밴드 참 무르팍엔이 출시되어 무릎이 불편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천연광물질에서 다량의 파장이 방사 및 방출되는 무르팍엔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무르팍엔에는 4가지 광물(겔라이트, 그라파이트, 칠보석, 의료용 자석)이 침착되어 있으며 그중 그라파이트는 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 이상 팽창시킨 물질로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의 30배에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는 고가의 신소재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무릎에 착용하여 생활해보시면 시원하고 가뿐해짐을 느낄 것이며 가볍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겉옷 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고 활동성이 좋아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 보면 정말 만족하실 것이고 이곳저곳 소문 많이 내주세요~

불만족 시 무조건 반품하세요!!

불편한 무릎을 위하여~

상담문의: 무르팍엔
1670-5467

휴대용 허리가 불편해 고생하시는 분~

▶허리건강 비밀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며칠 착용해보니 그것 참 좋구나!





名作 名品

전기 없이 스스로 피부와의 열교환으로 발열되는 허리조아 발열벨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4가지 천연광물에서 나오는 파장이 다량 방사 및 방출되는 제품이다.

허리조아 발열벨트는 4가지 광물질(겔라이트, 그라파이트, 칠보석, 의료자석 등) 중 그라파이트라는 신소재는 천연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이상 팽창시킨 물질이며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보다 30배,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며 허리부위를 전기없이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물질이며 불편한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받혀 줄 것이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겉옷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게 착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몸이 차가워지면 몸과 마음 그리고 매사의 의욕이 사라지는데 몸이 차가워지면서 생기는 현상을 바로잡아 주는데 필요한 것이 찜질 요법이며 찜질요법은 옛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요법 중의 하나이며 현대의학에서도 많은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입증되는 추세이다.

허리가 편하면 만사가 편하다!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는 것들은 우리 몸에 냉기가 쌓이면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많다. 우리 조상들은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면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고 아랫목에서 한숨 푹 자고나면 온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알았는데 바로 그것이 원적외선 찜질효과 때문이었던 것이다.

최근 허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허리조아 발열벨트가 출시되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불편한 허리를 보호해주는~

상담문의: 허리조아
1600-1047